

# 배송확대·가격할인... 대형마트, 생필품 공급 '안간힘'

## 신세계그룹

'쓱배송' 처리물량 지역별 20% 확대

## 홈플러스

30개 품목, 국민상품 지정 할인

## 롯데마트

신선·가공식품 등 가격 할인 진행



SSG닷컴 네오003에 주차된 쓱배송 차량



/신세계그룹 홈플러스 생필품 할인행사



/홈플러스 롯데마트 서울역점

/롯데쇼핑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몰은 배송이 마비되고, 생필품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는 생필품 공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통합 플랫폼 SSG닷컴은 '쓱배송' 처리물량을 기존 대비 지역별로 최대 20%까지 늘렸으며, 특히 온라인스토어 네오(NEO)에서 출발하는 서울·경기지역 대상 새벽배송도 기존 대비 50% 확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주말 이후 SSG닷컴의 전국 평균 주문 마감률은 99.8%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쓱배송 마감율은 전국 평균 80%선임을 감안하면 거의 20%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SSG닷컴은 전국적으로 배송차량을 60대 이상 늘리는 한편, P.P센터 인력도 단기적으로 증원해 처리 가능한

물량을 기존보다 최대 20% 더 늘려 하루 약 6만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홈플러스 역시 온라인 주문이 몰렸다. 20일부터 26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몰 매출은 전년 대비 162% 늘고, 일평균 2만3000명 이상 신규 고객이 유입되면서 2월 신규 고객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장바구니도 무거워졌다. 평균 객단가가 20%나 오르며 평소보다 많은 양을 쟁여 두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온라인몰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배송 대란이 절정에 이르자 대형마트로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마트는 27일부터 3월4일까지 신선식품, 가공·생활용품 등 생활필수품 30여개를 국민가격 상품으로 선정하고 최대 40% 할인, 1+1 등 할인 혜택을 제공

한다.

대표 상품으로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삼겹살·목심(100g)' 270톤 물량을 토·일·월·화(2월29일~3월3일) 4일간 행사카드(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비씨·NH농협·우리·IBK기업·씨티·SC카드) 결제시 정상가 1400원에서 30% 할인한 980원에 판매한다.

코로나19 사태에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대표 생필품인 쌀도 저렴하게 준비했다. '의성 일품현미·일품쌀(4kg·10kg)' 총 14만포를 각 8980원·2만1900원에 판매한다.

가공·생활용품은 김치·통조림·세탁제 등 각 분류별 대표 품목들을 선정해 총 20여개 상품을 가격할인뿐 아니라 1+1, 2입 기획상품 등으로 준비했다. 이밖에, 소시지·고추장·삼푸·바디워시·치약·칫솔 등 다양한 생필

품을 1+1 행사상품으로 4900~2만7500원에 준비해 가계살림 절약에 힘을 보탠다.

홈플러스는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라는 타이틀을 건 할인행사를 3월 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수요가 커진 식재료 관련 용품도 저렴하게 판다. 천년의 솜씨 신동진 쌀(20kg·포) 4만9900원, 오투기밥(210g\*24입) 1만7980원, 농심 육개장 사발면(86g\*6입) 3480원, 광천김 기획(총 40봉) 8990원, CJ 스펀 클래식+스팸 마일드(250\*5입+200g) 1만3880원, CJ 비비고 포기 배추김치(3.3kg·팩)는 2만3900원이다.

롯데마트도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해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4일까지 신선식품, 가공식품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오투기 굴 진짬뽕'을 기존 판매가보다 50% 가량 할인된 2740원에, '폴무원 구리 소고기죽'을 기존 판매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인 3180원에 선보인다.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신한카드 결제하면 '냉동밥' 전품목을 기존 판매가 대비 20% 할인된 금액에, '오투기·대상 카레&짜장' 전품목을 기존 판매가보다 3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특수'도 매출 증가에 한몫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판매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뷔페 대신 보양식·프라이빗룸 체크... 달라진 호캉스

코로나여파로 음식공유 우려 커져 마늘·버섯 등 면역력 강화메뉴 인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최근 '호캉스(호텔+바캉스 합성어)'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뷔페 대신 별실의 중식당·일식당 인기

27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특급호텔 뷔페 업장 매출이 평소 대비 30~35%가량 급감해 타격이 크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러 사람이 음식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신 이용객들은 별실을 갖춘 레스토랑을 비롯해 프라이빗룸(별실)에서 즐기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뷔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프라이빗룸을 갖춘 일부 레스토랑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 모두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일식, 중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등 별실을 갖춘 호텔 식당 종류는 다양하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1층에는 13개 별실을 보유하고 있는 정통 일식 레스토랑 '하코네'가 있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관계자는 "일식 레스토랑은 별실뿐 아니라 홀 좌석에도 모두 칸막이로 분리되어 프라이빗한 식사가 가능하다"며 "코로나19 발생 후 별실을 찾는 손님들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4개의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그랜드



호텔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성게알 불나물 비빔밥 한상을 선보였다. 해당 호텔에서는 면역력 회복에 좋은 메뉴로 꾸러진 '봄봄봄' 프로모션을 3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얏트 호텔의 식음업장 '소월로'도 최근 프라이빗룸을 찾아 졸업 입학 기념을 위해 모여든 가족단위 고객이나 커플들이 많이 찾고 있다.

◆딸기 뷔페 대신 면역력 강화 메뉴 출시

몇 년 새 딸기 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호텔업계에서는 이른 봄인 2~3월부터 딸기 뷔페 프로모션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다르다. 호텔업계에서는 봄맞이 새 메뉴나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을 출시하며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하는 손님들을 끌어모은다.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신체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메뉴로 구성된 '면역력 증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면역력 강화 대표 식품으로 알려진 마늘, 버섯, 호박, 시금치 등을 활용하여 한식인 당근 호박죽, 도다리 찹국, 두릅과 낙지, 제철 쭈꾸미, 각종 불나물부터 버섯 리조토, 커리 크림 스파게티 등 기존 100여 가지 뷔페

메뉴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메뉴를 추가 구성했다.

호텔 서울드래곤시티는 27일 봄맞이 제철 불나물 코스와 비빔밥 즐기는 '봄봄봄 프로모션'을 3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봄봄 프로모션'에서는 최근 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비타민, 철분,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해 신선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특히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회복에 좋은 불나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인다.

호텔 관계자는 "몇 년 새 딸기 및 디저트 뷔페가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면서 2~3월부터 관련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 디저트 뷔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며 "대신 보양 음식을 비롯해 면역력을 올려주는 메뉴 등 건강식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여가는 프라이빗하게!



그랜드인터컨티넨탈의 일식당 하코네에는 13개의 별실이 있다. 기존에도 프라이빗룸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이슈 이후 수요가 더욱 늘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문화센터나 운동모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다. 반대급부로 특급호텔의 프라이빗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플라워숍 '피오리'는 봄을 맞이하여 '봄맞이 플라워 클래스'를 3월 22일 진행한다. 해당 클래스는 프라이빗 룸에서 소규모로 진행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를 줄였으며 호텔 전문 플로리스트의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다.

서울 남산에 있는 도심 속 리조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객실 내 릴랙세이션 풀이 마련되어 있어 객실을 벗어나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호텔동 한 층에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의 객실만이 있어 감염자 접촉에 대한 우려도 적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내달 2일부터 우체국 마스크 판매

우분 1인당 5매 이내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내달 2일 오후부터 보건용 마스크 40만장을 판매하고, 이전에도 추가 물량이 확보되면 앞당겨 판매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판매 관서는 대구·경도 지역과 공급 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에 소재한 우체국이고, 판매 수량은 1인당 5매 이내다.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피해지역 제휴점주 광고비, 포인트 환급"

야놀자 코로나 대응 상생책 발표

야놀자가 2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휴점주를 대상으로 상생 지원책을 발표했다.

야놀자는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경상북도 및 제주 지역에 위치한 모든 제휴점을 대상으로 3월 광고비를 전액 포인트로 돌려준다. 환급된 포인트는 오는 8월까지 광고 및 마케팅에 사용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